



제과기능장 교류의 場 '한국제과기능장협회'

투철한 장인정신 빛나는 국내 최고 제과 기술인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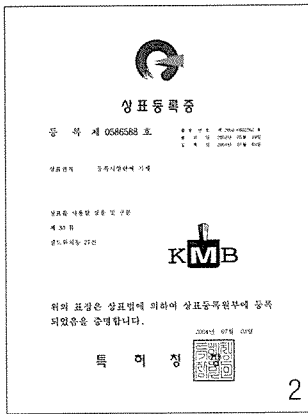
제과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꿈꾸는 선망의 모임이 있다. 1992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딱 156명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진 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국가가 공인한 제과기술 자격등급 가운데 맨 위의 등급을 받은 제과기능장의 타이틀을 보유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한국제과기능장협회는 한국 최고의 제과기술인 모임이라 하기에 전혀 손색없다.

글_홍선화 기자 · 사진_주현진

제과업계의 수많은 단체 가운데 제과업계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은 뛰어난 기술인이라 하더라도 제과기능장이라는 꼬리표가 없으면 그 누구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기술인 모임이 있다. '기능장'의 타이틀을 보유한 제과기술인에게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이하 기능장협회)는 제과기능장이 아닌 사람은 쳐다볼 수도 없는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1995년 제과기능장 1호인 신철수, 임영래, 조창현 씨를 비롯해 서정웅, 박찬회 씨가 주축이 돼서 결성된 기능장협회는 초창기만 해도 20여 명이 채 안되던 회원 수가 1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흐르면서 154명으로 불어났다. 제과기능장의 모임이라고 해서 기능장협회가 제과기능장이 되는 즉시 무조건 가입하는 강제성을 띤 모임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제과기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꿈꾸는 선망의 모임이었던 만큼 별다른 이면이 없는 한 제과기능장이 되자마자 곧바로 가입한다.





2

기능장의 자부심을 담은 'K' 'M' 'B'

제과기능장이 처음 배출된 1992년부터 2005년 1월 24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과 기술이 뛰어나다고 공인받은 제과기능장은 지금까지 단 156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이들 중 어느 한사람 쉽게 제과기능장에 오른 사람이 없다.

기술인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쏟은 땀과 열정은 '모든 행운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실감케 한다. '제과기능장' 이 되기 위해 남보다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얻은 값진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에 사는 기술인이 제과기능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웬만한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힘든 일이다. 대부분 어렵사리 제과기능장의 타이틀을 꿰차서 그런지 기능장협회 회원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의 입장에서 서서 끈끈한 유대 관계를 자랑한다.

기능장협회 회원 가운데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많다. 제과기능장에 도전할 때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가 무려 12번째 도전 끝에 기능장의 타이틀을 차지한 11전 12기의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부가기능장과 형제기능장도 있다. 이제는 2세들이 제과인의 길을 걷고 있는 기능장들의 부가기능장 탄생을 기대한다고.

기능장협회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거리는 기능장 심볼마크를 꼽을 수 있다. 기능장협회 회원이 되면 The Association of Korean Master Bakers의 영문 이니셜 'K' 'M' 'B' 와 조리사 모자를 응용한 글로벌 마크가 새겨있는 18K 금배지와 위생복을 지급받는다. 이 심볼마크에 기능장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것이다. 기능장협회는 지난 2004년 7월 3일 기능장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기능장마크를 무단 도용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권리 찾기에 돌입했다. 제과기능장협회가 아닌 사람은 기능장 심볼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다.

3개 부서로 개편하며 완전한 조직체제 구축

연일 차가운 영하권의 날씨가 기승을 부리다가 조금 기세를 누그러뜨린 1월 6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으면서 한국제과학교 3층에 자리잡은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사무실로 낮익은 얼굴들이 들어섰다. 지난 7월 3일 한국제과기능장협회의 새로운 수장이 된 유현식 회장을 비롯해 김봉수 부회장, 김영선 사무총장, 안창현 기획처장, 오병호 교육처장, 윤성모 재무 등이 올해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1월 12일에 갖는 신년회 준비를 위해 임원들이 바쁜 가운데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4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임원들 모두 지친 표정 하나 없이 열띤 토의를 펼치는 모습에서 기능장협회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1월 12일에는 오랜만에 모든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결속을 다지는 신년회가 열려 기능장들이 총출동했다.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임현양, 권상범, 김종익, 박찬회 제과명장이 참석해 기능장들을 격려했고, 흥행홍 한국제과학교 교장의 넉넉한 덕담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이날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기술지원금 전달식과 기술 제휴 조인식.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 대표 홍중훈·최인호 회원과 핀란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 대표 김호겸 선수에게 기술 지원금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고, (주)삼양사·(주)삼양웰푸드와 공동 마케팅을 위한 기술제휴 조인식을 가져 기능장협회의 약진을 다짐했다.

신철수 초대회장에 이어 서정용 회장과 박찬회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모임의 틀을 갖춘 기능장협회는 현 협회장인 유현식 회장이 취임하면서 사무실 마련과 함께 완전한 조직 체제를 구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조직개편이다. 협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집



3

1 제4대 기능장협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임원들. 3개 부서와 5개 지역본부로 조직을 개편해 운영되고 있다. 2 기능장협회는 기능장마크를 무단 도용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했다. 3 기능장마크가 새겨진 위생복은 오로지 기능장 회원들만 입을 수 있다. 2005 월드페이스트리컵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홍중훈(사진 오른쪽)·최인호 회원 4 기능장협회는 (주)삼양사 및 (주)삼양웰푸드와 기술 제휴 조인을 체결했다.



4

행부를 기획처, 교육처, 기술정보처 등 3개 부서로 나누어서 각 부서마다 실무를 책임지고 담당한다.

안창현 기능장이 이끄는 기획처에서는 기능장협회의 브레인이라 할 만큼 협회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곳에서 기획되고 이곳에서 마무리된다.

교육처에서는 오병호 기능장을 중심으로 기능장의 제품력과 기술 향상에 관련한 교육을 담당한다. 그동안 기술인들이 온갖 고생과 노력 끝에 기능장이 된 다음 기술력 향상에 대한 노력을 예전보다 게을리 한다는 사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회원 모두 실력 연마에 힘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교육처의 활동이 무척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 기능장들을 위한 기술 전수에 초점을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며 기술 노하우를 전하는 기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미나는 (주)삼양사와 (주)삼양웰푸드로부터 세미나 비용 일체를 협찬 받아 무료 세미나로 추진한다. (사)대한제과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와 기능장 시험 일정을 피해 3월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 광주, 대구, 천안, 울산, 부산, 수원, 대전, 원주 전주, 서울 등을 순회하며 각 지역에서 원하는 제품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문식 기능장을 중심으로 일이 추진되는 기술정보처는 먼저 회원들에게만 개방됐던 홈페이지(<http://akmb.or.kr>)를 점차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오픈해 회원들은 물론 제과기능장에 도전할 제과인들의 정보전달매체로 운영한다. 기능장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의 레시피는 물론 Q&A 코너를 마련해 제과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제대로 된 사이트를 선보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 작업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부담이 꽤 큰 프로젝트여서 차근차근 진행시켜 가는 중이다.

5개 지역본부 활성화로 회원 활동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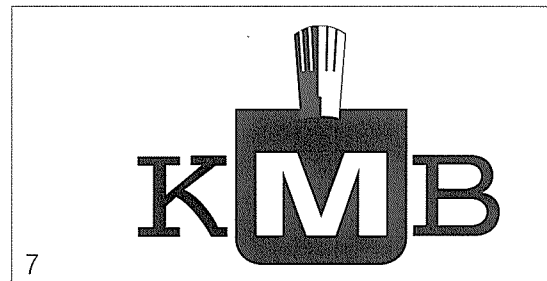
기능장협회의 또 다른 변화로는 5개 지역본부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154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고, 각 회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서울 강남, 서울 강북, 경기·인천, 충청·호남, 영남 등 5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본부장을 두고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져 회원 스스로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있다.

기능장협회에 소속된 모든 회원이 모이는 정기모임은 1년에 딱 2차례 서울에서 갖는다. 1월에 열리는 신년회와 7월에 갖는 정기총회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거주지역에서 갖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은 어느 정도 마련한 셈이다.

기능장협회가 올해 주안점을 둔 현안은 무엇보다도 협회 일에 회원들을 동참시키는 일. “기능장협회의 주인은 바로 회원입니다. 임원들 몇 사람이 협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모두 소속감을 갖고 움직일 때 협회가 한 걸음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을 지난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춘 각 부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 취임 직후 발표한 여러 가지 개혁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현식 회장은 기능장협회의 2005년도 행보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 가능하게 해준다. 올해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기능장 회보’와 전국 순회 무료 세미나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능장협회 회원수첩을 펴낼 예정이다.

또 임원들의 워크숍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협회 활성화를 위한 갖가지 안건에 대한 토의도 이루어지게 된다. 올해를 제2의 도약기로 삼고 국내 최고 기술인 모임으로 등극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기능장협회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 ☞



5 기능장협회 신년회에 제과명장들이 모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 6 한국제과학교 3층에 자리잡은 기능장협회 사무실에서 임원들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7 기능장 심볼마크. The Association of Korean Master Bakers의 영문 이니셜 'K' 'M' 'B'와 조리사 모자를 응용한 글로벌 마크가 새겨있다. 8 유현식 회장이 월드페이스트리컵 한국 대표 홍중훈·최인호 회원과 핀란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대표 김호겸 선수에게 기술 지원금을 전달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